

3개대학 동성애자 단체
인권회복 공개활동 선언

96.3.23 ○...서울대·

이식

연세대·고려대
세 대학의 동성
애자 단체 회원

40여명은 22일 저녁 8시 서울 중
구 장충동 '여성평화의 집'에서 '한
국대학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'
를 띄웠다.

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"우리는
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
않는 한국사회의 집단적 침묵을
거부한다"며 "동성애자의 권리를
짓누르는 이성애주의와 가부장적
차별을 극복해 동성애자들이 자긍
심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
도록 힘쓰겠다"고 밝혔다.

협의회는 세계 동성애자들의 날
인 다음달 15일 동성애 문제를 다
룬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시작으
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, 8월부터
는 '동성애자 인권학교'와 '성정치
위원회'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.

협의회에는 서울대의 '마음 001',
연세대의 '컵 투게더', 고려대의 '사
람과 사람'이 참여했다.

유강문 기자